

# LG상사, 정유 · 석유화학 수주 불투명

타타르스탄 TKNK 공개입찰 변경으로 ... 노무현 대통령 방문효과 무산

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추진됐던 LG상사의 타타르스탄 정유 · 석유화학 플랜트 수출이 현지기업의 입찰방식 변경으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.

관련업체에 따르면, 프로젝트 주관사인 TKNK(Tatarstan Korea Neftekhim)는 6월 주주회의를 열고 LG상사에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플랜트 건설 담당기업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LG상사는 2004년 9월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국영 석유회사인 타트네프트와 30억달러(약 3조1000억 원) 상당의 정유 ·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수주계약(MOU)을 체결했었다.

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국내 최대 수주액으로 모스크바 동쪽 약 10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정유설비 및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LG상사와 LG건설이 제안형 개발사업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LG상사는 금융 조달을, LG건설은 설계, 시공, 구매(EPC 턴키)를 담당할 계획이었다.

<화학저널 2005/07/27>